

2026년도 제14회 행정사 1차시험(2025. 5. 30.시행)
「민법(총칙)」 총평

- 이패스행정사 이동건-

■ 민법총칙 총평

어려운 판례가 출제되어야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판례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다. 까다로운 케이스나 박스형 문제도 거의 없다. 따라서 평이한 문제라고 총평할 수 있다.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.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80점은 너끈히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.

다음은 개별 문제에 대한 평가이다. 최대한 평균적인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았다.

수험생 여러분들, 수고하셨습니다.

■ 민법총칙 문항별 분석

1. 법원 난이도 하
기본판례를 정답으로 하였다.
2. 신의성실의 원칙 난이도 하
실효의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다. 나머지 지문도 의외타 판례는 없다.
3. 자연인의 능력 난이도 하
기본 판례가 정답이다.
4. 부재와 실종
기본 내용이 정답이다.
5. 비법인사단 난이도 하
박스형 문제이지만 평소에 다루던 중요한 내용만이 출제되었다.
6. 사단법인 난이도 하
정관의 해석에 대한 기본판례가 정답이다.
7. 재단법인 출연행위 난이도 중 내지 하
전부 강의시간에 강조한 판례이어서 사실은 난이도를 하로 보아도 된다. 그러나 ㄴ판례는 약간 어려우므로 틀린 분들도 있을 수 있다.

8. 물건 난이도 하

종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기본 내용이다.

9. 법률행위 난이도 하

2번 지문은 약간 어렵다.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을 틀려서는 안되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다.

10. 반사회질서 난이도 하

ㄱ은 처음 출제된 판례이다. 그런데 이 판례를 모르더라도 ㄴ은 무효, ㄷ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기본 내용이다. ㄱ을 모르더라도 풀 수 있는 문제이므로 난이도는 하가 맞다.

11. 불공정 법률행위 난이도 하

전부 기본 내용을 출제하였다.

12. 비진의표시 난이도 상

사실은 맞출 수 있는 문제이다. 그러나 입증책임은 항상 어려운 문제이고 정답으로 제시된 5번은 약간 어려운 판례이므로 난이도를 상으로 하였다.

13. 착오 난이도 하

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너무 중요한 판례이어서 난이도는 하가 맞다.

14. 사기 난이도 하

정답으로 제시된 지문은 기본판례이다.

15. 대리 난이도 중 혹은 하

사실은 난이도가 하가 맞다. 전부 기본 내용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ㄷ지문이 생소할 수 있어서 헷갈리는 분이 있을 수는 있다.

16. 복대리 난이도 하

복대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다.

17. 무권대리 추인 난이도 하

기본 조문을 출제하였다.

18. 토지거래허가 난이도 상

ㄷ 동시이행항변권은 민법총칙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다. 약간 의외타 판례를 출제하여서 난이도를 상으로 한다.

19. 난이도 하

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. 그러나 정답으로 제시된 5번 지문은 너무 기본 내용이므로 이는 난이도 하가 맞다.

20. 조건 난이도 중

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구분하지 못하면 정답을 맞출 수 없다.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평소에 유의하지 않으면 틀릴 수 있다.

21. 기간 난이도 하

지문 속에 답이 있다. 토요일을 유의하면 된다.

22. 제척기간 난이도 상 혹은 중

민법총칙에서는 예약완결권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체감상 어렵게 느낄 수 있다.

23. 소멸시효 완성 난이도 상

소멸시효에 대한 종합문제이므로 난이도는 상으로 분류하는 게 옳다.

24. 소멸시효 중단 난이도 하

정답으로 제시된 발신주의는 생뚱하다.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다.

25. 형성권 난이도 상 혹은 중

이는 채권법의 문제이다 생소하게 느낄 수 있다.